제6장 기질을 바로 잡으라

도 입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앞장에서 말한 성실(誠實)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매사에 정성껏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운가?

사실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려면 끈기와 용기와 인내심이 있고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반면에 끈기가 없고 겁이 많으며 쉽게 포기하고 게으른 성격을 지닌 사람은 결코 성실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적 성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성실히 공부하면 그런 기질도 바꿀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런 성격이나 성향을 기질(氣質)이라고 불렀는데, 율곡 선생도 이런 기질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겼다. 이 장에서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 그것을 바로잡는 공부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이미 학문을 성실히 했다면 반드시 치우친 기질(氣質)을 고쳐서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張子 : 張載)가 말하기를 "학문의 큰 이익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기질을 고치는 것을 성실 다음에 둔 이유이다.

[통서(通書)]

굳센 기질의 장점은 의롭고 곧고 결단 있고 엄하고 굳세며 견고하나 단점은 사납고 좁고 강경하다. 부드러운 기질의 장점은 자애롭고 순하고 공손하나 단점은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으며 간사하고 아첨

한다. 오직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의 도리가 성인의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가르침을 세워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악을 바꾸어 중용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게 한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으로 서로 멀어진다."

[논어]

안연(顔淵)이 인(仁)함에 대하여 물었더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행함이니라. 하루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온천하가 그 인함을 인정할 것이다. 인을 행함은 자기를 말미암으니 남을 말미암겠는가?"라고 하였다. 안연이 "그 조목을 묻습니다."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안연은 이르기를 "제가 민첩하지 못하지만 이 말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중용]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

[중용]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울 바에는 능하지 못한 것을 그만 두지 않고, 묻지 않으면 몰라도 물을 바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생각할 바에는 터득하지 못한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분변하지 않으면 몰라도 분변할 바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행할 바에는 독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백 번이라도 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천 번이라도 한다.

[율곡의 풀이]

일기(一氣)의 근원은 맑고 텅 빈 것이지만 다만 활동하는 양기와 고요한 음기가 서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면서 어지럽게 흩날리다 합쳐져 질(質)을 이루고 드디어 그 기질이 이루어진 것이 고르지 못하다. 동식물은 치우치거나 막히게 되면 다시 이것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 단지 사람만은 그

기질에 맑음과 탁함, 순수함과 혼잡함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아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모두 요순(堯舜)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기(氣)가 맑고 바탕[質]이 순수한 사람은 앎과 실천을 힘쓰지 않고도 능히 알고 행할 수 있으니 더할 것이 없다. 기는 맑으나 바탕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아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실천에는 능숙하지 못한데, 만일 반드시 성실하고 독실하게 몸소 실천하면, 행실이 바로 서서 유약한 자가 강해질 것이다. 바탕은 순수하나 기가 탁한 사람은 행함에는 능숙하지만 아는 것에는 능숙하지 못한데, 만약에 묻고 배우는 데 힘쓰기를 반드시 성실히 하고 정밀하게 하면, 지식이 통달하여 우매한 자가 명석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기예(技藝)에 대해 말하면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시험 삼아 음악을 배우는 일 한 가지를 가지고 말해보자. 어린 사내아이나 여자아이가 처음에 거문고와 비파를 익히면서 손가락을 놀려 소리를 낼 때는 듣는 사람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 하지마는, 쉬지 않고 노력하여 점점 그 아름다운 음률을 이루고 그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소리가 맑고 조화로우며 막힘이 없어 정묘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저 어린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어찌 음악을 나면서부터 잘 했겠는가? 오직 실제로 노력하고 학습한 것이 쌓여 익숙해졌을 뿐이다. 모든 기예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학문으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 그런데 세상에 절묘한 기예를 가진 백공(百工 : 온갖 장인)은 있으나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그 기질을 변화시킨 자를 보지 못했으니, 이는 다만 그 지식을 넓히고 말솜씨에만 힘을 쏟는 데서 온 결과이다. 그리하여 기질이 굳센 자는 끝내 부드러움을 갖지 못하고, 부드러운 자는 끝내 굳셈을 갖지 못한다. 탐욕한 자가 청렴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고, 잔인한 자가 자애로워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으며, 경박한 자가 신중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실제 노력하는 일이 백공의 기예에만 있을 뿐이고 학문에는 없는 것이니, 이 얼마나 탄식할 노릇인가?

해 설

사람의 자신이 타고난 육체의 기질에 따라 성격이나 태도가 형성된다. 물론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환경이나 교육 그리고 자기 수양은 이러한 좋지 못한 기질을 바꾸는 요인이 된다. 율곡선

생은 누구나 이렇게 기질을 바꾸는 공부를 계속하면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기예는 연마하여 향상시킬 줄 알면서 학문으로 기질을 고치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생각해 볼 문제

1. 자신의 재주나 기술을 갈고 닦아 절묘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많다. 지금도 기술자나 예술가들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율곡 선생은 "사람의 실제 노력하는 일이 백공(百工)의 기예에만 있을 뿐이고 학문에는 없는 것이니, 이 얼마나 탄식할 노릇인가?"라고 하여,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켜 인격적으로 훌륭한 군자나 성인이 없음을 한탄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성인이나 군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면 율곡 선생이 이런 기술 또는 예술의 경지와 도덕의 경지를 똑같은 것으로 본 논리의 오류일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현실에서 성인·군자가 없는 이유 :

*율곡 선생의 논리에 대한 의견 :

2. 기질(氣質)은 타고나는 것이다. 다만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 이 성질(性質)만은 고쳐야겠다고 자각하였거나,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이에 반성하고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질을 바꾸고 구습(舊習)을 혁신하는 공부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공부 중의 공부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여러분들에 고쳐야 할 기질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3. 세운 뜻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남보다 백 배, 천 배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도에 포기하는 까닭 :

*감동을 주는 까닭 :

4. 사실 기질 또는 성격을 바꾸는 일은 율곡 선생이나 유학자들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현대의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다. 오히려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성현들의 말씀이 현대에 무가치한 것일까? 인문학의 가치에 입각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기질변화에 대한 내 생각 :

5. 율곡 선생은 다른 만물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만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교육학 등에서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지어 인간은 교육을 통해 변화한 역사적 인물에서 그 예를 찾아 말해 보시오.

*본문에서 기질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 :

*역사적으로 교육을 통해 크게 바뀐 사람 :

자 왈 비 례 물 시 비 례 물 청 비 례 물 언 비 례 물 동
子曰 非禮勿視하고 非禮勿聽하고 非禮勿言하고 非禮勿動하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非 : 아니다/禮 : 예법/勿 : ~하지 말라. 금지를 나타내는 말/視 : 보다/聽 : 듣다, 받아들이다/言 : 말하다, 말/動 : 움직이다, 행동하다

*모두 금지하는 네 문장으로 연결 되어 있는데 모두 명령문이다.

*非A勿B : A가 아니면 B하지 마라의 숙어이다.

*극기복례(克己復禮)의 구체적 사례를 표현한 말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시청언동(視聽言動) :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인간이 삼가야 할 행위를 통틀어 표현한 말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박 학 지 심 문 지 신 사 지 명 변 지 독 행 지
博學之하며 審問之하며 愼思之하며 明辨之하며 篤行之니라(『중용』).

한자 풀이와 해설

博 : 넓다/ 學 : 배우다/之 : 대명사/ 審 : 자세하다, 살피다/ 問 : 묻다/ 愼 : 삼가다/ 思 : 생각하다 /明 : 밝다/ 辨 : 분별하다/ 篤 : 도탑다, 독실하다/ 行 : 행하다

*주어는 일반 사람으로 생략되었다.

*之 : 동사 學·問·思·辨·行의 목적어이다. 이 문장의 앞에서 말한 내용을 대신 받는 대명사로 쓰였다.

*博·審·愼·明·篤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학문사변(學問思辨) :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일

*심문(審問) : 자세히 물음 또는 따져서 물음

해석

그것을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